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Ⅰ)
-관념적 효과를 중심으로-

박 명 희 · 정 연 자*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 호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Transperancy expressed in Current Fashion(Ⅰ)
-In the Context of Ideal Effect-

Myung-Hee,Park · Yun-Ja,Jung*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itile, Ho-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wo types of 'transparency' concept expressd in architecture and garment, which has not only been an important theme in the post-modern expression of architecture but been shown in various types of concep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ransparency and through theoretical studies divided them into four types: frankness(purity, ambiguity, comparison, exposure and eroticism.

Purity, building would use the matrial which is transparent glasses for the exppрssion of its purity, and clothing would use the transparent matrial for the expression of the natural beauty of human body and the purity of human of itself.

Ambiguity is expressed in the outer side of architecture by duplicating transparent materials and by phenomenon of optical illusion and inflection. On the contrary, in garment it is shown in the outward formation of underclothing.

Comparison in architecture is expressed by the use of void but opaque materials as well as solid but transparent materials. Extinction is expressed with the visual effect of the context of the surrounding by the use of opaque glass and reflexive glass. In garment the effect of comparison is expressed by the use of mixing transparent materials and opaque materials. Building would express the inside of itself by the way of its exposure, and clothing would also express its frankness through the human body is partly opened or closed at the same thime, that arises from eroticism of the way of the expression of human feelings.

Key Word : 투명성(Trasparency), 순수성(Purity), 모호성(Ambiguity)
대비(Comparison) 노출(Exposure) 에로티시즘(Eroticism)

Ⅰ. 서 론

현대 디자인에 표현된 투명성(Transparency)은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단순성'으로 나타난 근대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자 하는 절제된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1]

1960년대 들어 사회적 다원화와 현대기술의 빠른 진보는 투명한 재료의 사용과 해석을 과거의 상징적이고 신비스러운 차원에서 가장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돌렸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기술의 이미지 표출로 유리건축의 여러시도와 함께 건축에서 투명성의 표현이 80년대부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유리예술의 발달로 유리 조형물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며 복식에서도 1968년 Y. S. Laurent이 투명한 소재로 만든 브라우스를 발표하면서 복식에 시-스루(See-Through)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시스루 패션 즉 비치는 의복은 최근에 투명한 패션(Transpa-Fashion)으로 해석되고 있다.

복식에서 추구하는 투명성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체를 중시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인체가 지니는 가치가 승인되고 또한 그것을 과시하는 경향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97년 춘하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대개의 메종이 색채가 다른 조오젯이나 오간디, 시폰 등의 얇고 비치는 소재를 이용한 의복의 컨셉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금의 시대가 지향하는 「가벼움」·「투명」의 절대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 99년 S/S 여성복 역시 가볍고 투명한 감각의 소재에 밝은 색채가 유행하고 있다.[3]

본 연구는 근대 이후 건축에 중요한 주제가 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투명성'과 198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고 있는 투명한 복식의 표현 양상에 주목하여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을 살펴보고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중심으로 투명성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투명성의 일반적 고찰을 하였고 실증적 분석으로는 작품집과 잡지를 통해 투명성을 나타낸 작품을 수집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패션잡지에 표현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Littrell[4] 이 제시한 좀더 자연적이고 해석적인 기술적,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을 행하는 절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대내·외적으로 대중성이 있는 잡지인 Collection에 나타난 여성복을 대상으로 의류 전공자 2인이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Ⅱ. 투명성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투명성의 정의

투명성이란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지는 실체적 속성, 대상을 가로지르는 가시적 공간의 전달 체계를 의미하며 라틴어원으로 볼 때, 「Trans(across) + Parent(see)」로 넘어 보인다는 말이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투명'이라는 성질 혹은 상태로 명백함을 의미하며 빛과 같이 관통함을 말한다. 또한 투명성은 손쉽게 감지할 수 있는 사물이나 명백한 사물을 찾는 인간 특유의 욕구를 표현하는 물질적 상태이며 교활, 핑계 혹은 위선의 결여라는 성격상의 특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투명한'이라는 형용사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요한 경어로 사용되면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5]

투명성은 하나로 정의되어 질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Transparency : ①. 투명한 성질 혹은 상태, 투명도(透明度), 명백함 ②. 투명한 것, (특수한 경우) 반투명의 사물 위에 그려진 그림, 각인, 또는 도안으로 배후에서 빛을 받아들임으로서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 빛을 받음으로서 보이도록 된 유리, 또는 다른 투명한 사물 위에 있는 사진 또는 그림 ③. 독일어의 전하(Durchlancht) 라는 칭호의 해학적인 번역.

Transparent : ①. 빛을 통하는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배후에 있는 물체를 완전히 보이도록 한다.

빛과 같이 관통한다. 갈라진 틈을 통해서 빛을 통한다. (드문 경우) ②. (비유적으로) 개방적인, 숨김없는, 공공연한, 손쉽게 알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혹은 감지할 수 있는, 명백한, 분명한.」

물리적 견지에서 투명성(transparency)과 불투명성(opacity)을 구분하여 보면, 투명성은 불투명성의 상대적 의미로서 후면의 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불투명성은 그와는 반대로 그것이 시각적 대체물로서 무엇인가를 감추어 안보이게 하는 것이다.[6]

복식은 건축과는 달리 인체가 매개체인 물적 대상이다. 대체로 인체와 재질과의 관련이 복식의 구조를 형성한다.

인간은 의복을 통하여 인체를 은폐하여 도덕심을 만족시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체를 노출시켜 자신을 과시하여 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노출의 미는 완전 나체가 아니라 감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강조된다.

투명한 복식은 인체를 감싸는 동시에 드러내어 감춤과 드러냄의 선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방법은 얇고 투명한 복식속에 인체가 살아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주며 잠재된 욕망이 부풀어 오른 것을 느끼게 해준다. 복식과 인체가 동일화되기 때문이다.

2. 투명성의 관련 제 이론

Colin Rowe[7]는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물질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형태 구조의 고유성으로 구별하였다. 물체의 다중성을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형태구조 및 공간의 성층작용을 의미하는 현상적 투명성과 물리적 존재를 동시에 지각시키는 유리에 의한 가시적 투명성으로 분류하였다.

Gyorgy Kepes[8]는 예술작품에서 발견되는 투명성을 「시각의 언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형에는 투명성이 부여되며 도형은 서로 시각상의 파괴없이 상호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단순한 시각상의 특성 이상의 것, 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 투명성은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한 도형의 위치는 우리가 각각의 모습을 가까운 것으로서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멀리 있는 것으로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물질의 어떠한 물리적 특성과는 현저하게 다르고 완전히 명백한 것이라는 개념과도 거의 동떨어진 투명성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이 정의에 의하면 '투명한'이란 말은 완전히 명백한 것을 의미하는 것 보다는 모호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G. Kepes에 따르면 투명성이란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한 동시적 지각을 의미하고,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건물은 동시에 지각되어 동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특성 및 공간적 질서로서의 투명성이라는 Kepes의 정의는 C. Rowe의 유리와 같은 가시적 투명성과 공간 구조로서의 인식적 투명성이라는 정의에 대응되는 것이다.

László Moholy-Nagy[9]는 『운동의 비젼』에서 형태의 중첩은 "공간과 시간의 고정화를 극복한 것이다." " 형태의 중첩에 의해서 의미없는 특이성도 의미심장한 복잡성으로 변환된다.... 중첩에 의한 투명감은 물질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성질을 표면화 하면서 전후 배경의 투명성도 암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명성은 철망이나 유리의 유리벽(Curtain wall)에서처럼 물질이 지닌 고유성일 수 있다. 혹은 kepes나 다소 그 정도가 덜하지만 Moholy가 주장하고 있듯이 어떠한 구조가 지니는 고유성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실(實)의 투명성과 지각적인 혹은 허(虛)의 투명성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투명성에 관한 제 이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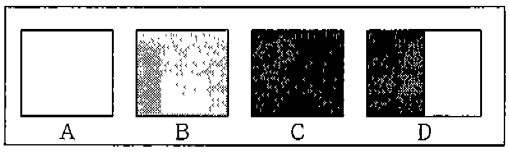
〈표 1〉 C.Rowe, G.Kepes, Moholy-Nagy에 의한 투명성의 기본적 정의 비교표

물질이 지닌 고유성 (가시적 투명성)	C. Rowe	구조가 지닌 구조성 (현상적 투명성)
시각적특성 (동시적지각)	G. Kepes	공간적 질서 (모호성)
실(實)의 투명성 (물리적 투명성)	Moholy-Nagy	허(虛)의 투명성 (지각적 투명성)
재료적 투명성		공간적 투명성

3. 투명성의 구성원리

재료적 상태를 가지고 투명성을 살펴보면 〈표2〉처럼 투명한 상태, 반투명하여 내부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모호한 상태, 막힌 불투명한 상태 그리고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이 대비된 상태,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10)]

〈표 2〉 투명성의 구성원리



A는 다음공간이 있는 그대로 지각되는 글자 그대로의 투명성으로 완전한 투명 상태를 의미하고 B는 다음공간이 불분명한 반투명 상태의 망형 구조물(철망 등), 플라스틱, 반투명한 아크릴, 창호지 등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경계에 있어 모호한 성격을 가지며 환영의 효과와 상상력을 유발한다. 표면의 성김을 통해 반투명의 글라데이션을 보여준다.

C는 다음공간 지각에 대한 완전한 차단으로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표면에 광택을 부가하여 반사성을 지니게 되면 사물을 비춰서 투명한 표피적 효과를 가진다. C의 경우와 같이 재료에 변형을 주어 투명한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경우를 착오적 투명성, 조작적 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D는 A와 C가 공존하는 상태로 투명과 불투명, 혹은 꽉참과 텅빈 상태의 혼재를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시각적 대비를 통해 투명성은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표3〉의 A, B, C, D 네가지 상태는 각각 은유적 의미도 가진다. A의 투명한 상태는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특성으로 솔직함과 순수성, 명백함을 의미하고 B는 반투명한 상태로 모호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A의 명확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명성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C의 불투명한 상태에 광택이 부여되면, 재질이 매끈해지고 주변의 것을 반사하는 거울 효과를 나타낸다. D에서는 다른 어느 상태보다 대비, 소멸, 여백의 이미지 표현을 통해 은유적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다. 이렇게 각각의 상태는 다양한 관념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투명성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고 특색있게 해준다.

〈표 3〉 A, B, C, D 분석표

	재료의 상태	이미지, 은유, 상징
A	투명	솔직함, 순수성, 명백함
B	반투명	모호함
C	불투명(완전폐쇄)	단절감, 반사를 통한 재현 가능
D	투명 & 불투명	대비, 소멸, 여백

투명한 복식에 사용되는 소재는 시폰, 실크, 레이스, 니트, 그물, 망사, 실,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다양하며 소재에 따른 독특한 미적 감각을 표현한다. 표현방법은 투명, 반투명, 부분투명, 불투명, 투명&불투명으로, 표현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며 노출 부위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투명, 반투명, 투명+불투명한 재료에 의해 나타나는 상징과 은유의 효과를 건축에서는 순수성, 모호함, 대비(여백)로 나누어 살펴보고 복식에서는 건축과 달리 에로티시즘이 표현되고 있으므로 순수성, 모호함, 대비(여백), 에로티시즘으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복식과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의 비교분석

클로드니(Rosalie Kolodny)[11]는 건축가나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 등과 같은 오늘날의 감각적인 디자이너는 현대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같은 반응을 한다고 하였으며 젬퍼(Gottfried Semper)[12]는 건축의 구성을 인체를 덮는 의복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는 의복의 원칙들을 건축의 '진정한 본질'로서 설정하기 위해 벽(Wand)과 의복(Gewand)에 해당하는 독일어 단어의 동질성에 주목하면서 '의복의 원리'를 건축의 '진정한 본질'로 설정하였다. '의복과 건축간의 상관관계'라는 장에서는 의복과 예술간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의복의 발달이 예술의 발달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로스(Adolf Loos)[13]도 건축과 의복을 동일시하여 젬퍼의 주장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의 논문 '의복의 원칙(The Principle of Dressing)'을 보면 건축은 직물에서 나오고 구조는 그 직물을 지지하기 위해 부가된 버팀대일 뿐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얀(Helmut Jahn)은 건축의 구조를 이루는 골조를 인체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뼈와 비교하면서 건축에서의 투명함을 설명하였다.[14]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인체가 존중되는 것만큼 드레스는 생명력을 획득한다."고 하면서, 복식은 건축적이어야 하며 골조처럼 인체를 이용한다고 지적했고[15] 에르테(Erté)는 옷을 건축의 시공과정과 비교하면서, 특히 재질인 옷감의 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여러가지 섬세한 디테일 처리까지 연결되어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A. Forty[17]는 특정한 상품(자동차, 복식, 카펫 등)을 선택하여 건축미의 조형성과 개념을 비교검토하거나 이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디자인과 건축의 차이점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을 비교분석하여 투명성의 표현특성을 살표보았다.

1.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

건축에서는 투명성의 구성원리인 투명, 반투명, 불투명, 투명+불투명의 4가지 한계안에서 표피적, 공간적, 관념적 효과를 나타낸다.

상징, 은유를 통해 관념을 이미지화하는 내적 표현은 표피적, 공간적 효과보다 관념적 효과에 중점을 두어 표현된다. 이러한 내적관계를 강조한 표현은 건축가가 재료와 공간의 다양한 암시와 이미지를 이해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관념을 투명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에 의해 나타나는 관념적인 이미지를 다루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단절감을 나타내는 불투명의 효과는 제외하였다.

1) 순수성

작가는 자신의 일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념이나 관념-설계개념-을 투명성의 이미지로 표현한다. 작가는 투명성이 갖고 있는 그리고 파생시킨 의미들을 투사시킴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것이다.[18]

미쉘 카강(Michel Kagen)의 「파리청소국 청사」의 전면 유리 스크린은 내부 작업을 길에서 투시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투명성은 작업상황을 대중에게 드러내 보이며 일상적으로 청소국의 일은 유쾌하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이다.[19]

장 누벨(Jean Nouvel)의 「카르티에 재단」〈그림1〉의 유리에서 얻을 수 있는 '베일효과'는 건물의 디자인 개념에 주된 디자인 요소로 사용된다. 이 건물은 투명성의 효과를 이용하여 솔직함, 재단만이 갖는 신뢰도를 표현하였으며 유리벽은 건물의 입면 자체로서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재단을 광고하는 역할을 한다. 투명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뢰성이라는 단순관념을, 이 건물 전체 유리 파사드를 통해 표현하였다.[20] 건물 외장이 모두 유리로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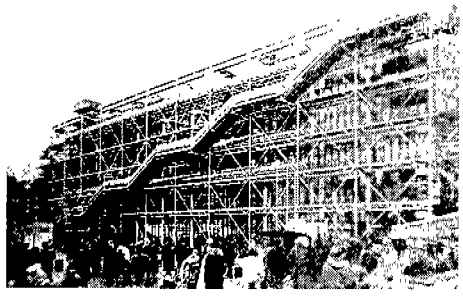
있어 유리에서 느낄 수 있는 순수성이 건물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1〉 투명한 카르티에(Cartier)재단
Plus(1994,10), p. 168.

2) 모호성

디자이너들은 전도와 무방향, 소외와 놀라움에 의해 공간경계의 모호성을 창조했다. 표현의 의도적 모호성은 경험의 혼란에 의하며 이것은 의미의 명료함을 넘어서 의미의 풍부함으로 촉진한다. 시지각의 모호성을 통해 혼란한 개인의 관념을 표현한다.

퐁피두 센터(Centre Georgio Pompidou : 1971- 1977) 〈그림2〉 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며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라는 모토로 설계되어진 이 건물에서는 단위 구성부재가 변화되어질 수 있음으로 인해 벽이 창이 될 수 있고, 내부가 외부로 될 수 있는 성장 가능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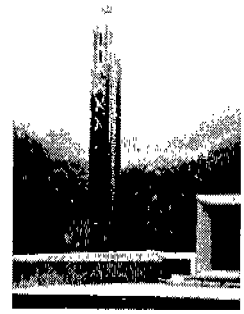
〈그림 2〉 퐁피두 센터
건축과 환경, 9102, p. 141.

구조와 설비의 노출은 외부에 매달리거나 당겨지거나 지지되어 있는 부재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한다. 또 구조체는 항상 명확한 순서-위계를 가지고 성립되며 여기서 도덕성, 순수성 등 투명성의 은유적 효과가 나타난다.

시저펠리(Cesar Pelli)의 Pacific Design Centers는 공간경계의 모호성과 함께 주변경관을 받아들이고 있으며[22]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의 유리벽면은 단순한 건축의 외관을 마무리하는 역할 외에도 파사드의 깊이를 획득하였다. 겹쳐지는 투명재료의 혼용, 착시와 굴절 현상으로 인하여 건물입면의 전후 깊이 및 공간의 깊이가 모호함을 느끼게 한다.[23]

3) 대비

라데팡스 지역의 「그랑 아르쉐」는 형태적으로는 보이드(虛,void)하지만 불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반대로 그 옆에 서게 될 「끝없는 탑」은 형태적으로는 솔리드(實,solid)하지만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랑 아르쉐와 강한 대립적 이미지를 일으킨다. 장누벨의 표현처럼 현상적 투명성이 실제적 투명성에 침투할 때, 건축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대립적인 이미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그림3〉



〈그림 3〉 그랑 아르쉐와 끝없는 탑
Plus(1994, 10), p. 170.

4) 노출

Mies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현대적 해석으로서 Philip Johnson의 Glass House(1947-49)〈그림4〉는 Miesian적인 공간구성을 염두해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디테일한 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 주택은 완전한 커튼월 형식의 외벽인 유리벽내에

개방된 공간을 장입하여 시각상으로 내부와 외부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건물안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투명성에 의해 투시되어지는 경관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지'로 해석하고 있다.[23]

〈그림4〉 Glass house
건축문화, 9603, p. 186.

2.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

현대 복식 디자이너들은 복식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인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수단으로 인체를 이용하고 있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고대부터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투명한 패션은 1990년대 들어 주요한 패션테마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내부의 것을 외부로 드러내 그 솔직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 순수성

Victor Papanec[25]은 모든 미적 가치체계는 자연의 추상적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자연 형태와 생물학적 과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인들은 의복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인체의 선을 살리고 인체가 비치는 투명한 의복에 자연물을 장식하거나 자연물의 문양을 넣어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다.[26] 이는 인체를 보이게 함으로써 이러한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솔직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5〉은 Popy Moreni 작품으로 비치는 소재와 나뭇잎, 나무덩쿨을 장식함으로써 인체와 자연의 하나됨을 표현하였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솔직한 의미를 의복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순수성을 추구하는 현대복식은 과장됨을 없애고 직물 평면에서의 장식성을 배제시켜 창조적으로 나타난 자연의 선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선의 사용은 인공적인 실루엣은 버리고 순수한 입체조형을 만들게 되었다.

〈그림5〉 Popy Moreni, 비치는 의복에 자연물 장식
'89 P/L, S/S, GAP, paris-24

2) 모호함

오늘날 많은 복식들은 속옷을 겉옷화함으로써 기존의 복식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Elizabeth Wilson은 속옷과 겉옷의 구분은 현대에서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는데 속옷의 모호한 위치와 그것의 가시성의 증가는 성성(Sexuality)을 둘러싼 모호함과 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27] 투명한 복식은 속옷을 겉옷화시키며 이러한 속옷의 겉옷화는 겉옷 밑으로 비쳐보이는 속옷의 분량, 형태, 색채가 디자인을 변화시키는 모호함을 연출한다.

이처럼 고의로 속옷을 겉에 보이도록 한 가장 실질적이면서 암시적인 속옷은 약 1783년경 엘리자

베스 비제 르부룬(Élizabeth-Vigée-Lebrun)이 그린 마리앙뜨와네뜨의 면 슈미즈인 슈미즈 아 라 렌느(Chemese à la reine)는 고의적인 노출을 의도한 속옷으로서 프랑스 혁명이전에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던 자유의 표현이자 자연주의 철학이 표현된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여겨졌다.[28] 〈그림6〉은 슬립 드레스로서 속옷이 겉옷화 됨에 따라 복식에서의 모호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6〉 David Fielden, 모호함 표현
Collection, 97 S/S, P/L, p. 371.

3) 여백(대비)

투명한 것은 불투명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또한 모든 대비들은 즉각적인 관심을 끌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29] 복식에서의 불투명과 투명한 소재의 혼합은 강한 대비를 느끼게하고 또한 투명한 부분에 의한 다양한 여백의 미도 표현된다. 투명성에서 표현되는 여백의 미는 에로틱함과 함께 단조로움을 없애고 자유스러움을 표현해 준다.〈그림7〉

4) 에로티시즘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으로 건축과 다른점은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의 과학 기술과 정보혁명에 의존하는 현대에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성에대한 문제가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과 활동에 커다란 변

〈그림7〉 Jean Colonna, 투명+불투명의 대비현상
Fashion News(1997, 6), Vol. 41, p. 43.

화를 가져왔다. 또한 미술계와 복식계에서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에로틱 아트를 수용하고 인간의 본성인 원초적 본질을 이루고 있는 에로티시즘을 표방하는 작가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체와 복식의 미적 관련성에 대해 Hollander[30]는 복식에서의 인체는 유리되거나 제외시킬 수 없는 매우 밀접한 상호존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투명한 복식은 인체를 더 돋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복식의 에로티시즘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내세우려 한다는 점이며, 이 이미지가 때때로 성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31] 패션에서 의식적으로 내세우려는 이미지는 인간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미지이다. 근본적으로 미는 성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왔다. 정숙성과 은폐가 공공연한 에로티시즘을 결정하는 일도 종종 있으나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바램이 패션의 성적 요소에서 가장 단순하며 지배적인 것이다.[32]

투명한 복식은 인체를 가리면서 동시에 드러내 보임으로서 보고싶은 욕망을 자극하며 비치는 시폰이나 오간자, 레이스 등으로 관능적인 미를 표현하여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8〉은 얇고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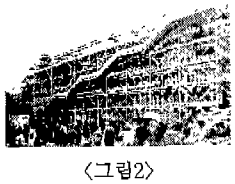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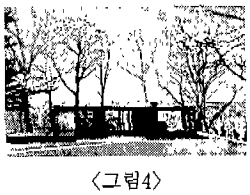
〈그림8〉 Katharine Hamnett, 에로틱한 의상
'91 P/L, S/S, Collection, p. 221.

명한 소재에 의해 인체의 선이 그대로 하나의 실루엣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복식과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의 비교분석을 〈표 4〉로 정리하였다.

V. 결 론

복식과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의 비교분석에서 건축은 지지대를 지닌 공간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의복은 인체가 지지대가 되어 공간적인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 건축과는 달리 에로틱한 표현을

〈표 4〉 복식과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의 비교분석

건 축		복 식	
〈그림1〉	1)순수성 유리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건물의 순수함과 신뢰도 표현	1)순수성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인간 본연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표현	〈그림5〉
 〈그림2〉	2) 모호함 구조와 설비의 노출로 내부가 외부로 될 수 있는 모호함 표현	2)모호함 속옷의 겉옷화로 투명성을 이용하여 속옷과 겉옷의 구별없이모호한 분위기를 표현	〈그림6〉
〈그림3〉	3) 대비 현상적 투명성과 실제적 투명성으로 대립적 이미지 표현	3)여백(대비) 투명한 소재와 불투명한 소재의 대비효과에서 투명성 부분을 이용한 다양한 여백의미가 표현	〈그림7〉
 〈그림4〉	4)노출 전체 유리 파사드를 통해 건물안을 모두 노출시킴으로서 건물의 솔직함 표현	4)에로티시즘 인체를 가리면서 동시에 드러내 보임으로서 보고싶은 욕망을 자극하며 관능적인 미를 표현	〈그림8〉

담고 있다는 것이 다른점이다. 또한 건축은 완전 투명이 가능하지만 의복에 있어서는 정숙설에 기인한 관념 때문에 완전 노출은 표현하지 않고 있다.

순수성은 유리건물로 인해 내부공간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유리에서 느낄 수 있는 순수성이 건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복식에서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인간 본연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투명한 의상과 자연물 장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모호성은 건물에서는 안의 구조와 설비를 노출시킴으로써 안과 밖이 모호해졌고, 복식에서는 투명한 소재의 의복 위에 속옷을 입거나 속옷을 겉옷으로 착용하는 속옷의 겉옷화로 모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대비(여백)는 건물에서 형태적으로 보이드(虛, void)하지만 불투명한 재료를 사용하고, 솔리드(實, solid)하지만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강한 대립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비현상에서 오는 여백의 효과는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없애준다. 복식에서는 투명한 소재와 불투명한 소재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대비효과를 나타내었고 대비에서 투명한 부분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서 시각적인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다양한 여백의 미가 표현되었다.

건물에서의 노출현상은 내·외 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공간의 확장과 함께 시각적으로 내·외부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내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건물의 솔직함을 표현하고 있다. 복식에서의 에로티시즘은 투명한 의복을 통해 인체를 가리는 동시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인체의 자연스런 이를 표현하는 솔직함을 보이고 있다.

어떤 「主義」 주장의 무게를 과시한 60년대에서 30년이 흐른 지금,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은 현대인들이 여러문제를 안은 현실에서 멀어지고 싶은 욕망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은 무거운 관념보다 가벼운 감수성으로 살아가려는 가벼움의 시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투명한 의상은 사회, 문화적 영향 속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주요 패션 트랜드로 주목 받으며 현대 패션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성의 잠재된 노출심리가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투명성을 표현한 디자인은 계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1) Anthony Vidl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The Architectural Uncanny, 1992, pp. 217-225.
2) Samsung Fashion Institute, 「Fashion Form」 1997. 4, Vol. 46, pp. 22-23.
3) 세계섬유신문, 제 5호, 1998. 10.
4) Mary A. Littrell, "Social and Cultural Analisis of Clothing :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지」, 1989, 10, p. 22.
5) Colin Rowe & Robert Slutzky, Tranzparency, Birkhäuser, 1997, pp. 21-22.
6) 데이비드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90, p. 101.
7) Colin Rowe & Robert Slutzky, Tranzparency, op, cit,. pp. 33-38.
8) Gyorgy Kepes, Language of Vision, Chicago, 1944, p. 77.
9) László Moholy-Nagy, Vision in Motion, Chicago, 1947, pp. 157-210.
10) 김소희,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96, pp. 34-36.
11) Rosalie Kolodny, Fashion Design for Modern (NY : Fairchild Publication Inc.,1968), p. 103.
12) 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 Cambridge Univ. Press, 1989, p. 254.

13) Adolf Loos, Principle of Dressing, Spoken into the Void: Collected Essays 1987-1900, pp. 66-67.

14) Werner Blaser, Transparency, Birkhäuser, 1996, p. 53.

15) 조규화, "Elsa Schiaparelli", 「의상」, 79, 10월

16) 이규태, "Erté", 「의상」, 79, 5월.

17) A. Forty, "Clothes and Concepts",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 No. 1, 1989, pp. 1-13.

18) 이필훈, "벽 · 투명성 그리고 그 뒤", 「건축문화」, 9408, p. 159.

19) "현상으로서의 예술", 「공간」, 9401, p. 29.

20) 이은석, "프랑스의 산업양식①, -장누벨과 극단을 향한 이미지-", 「Plus」, 9410, pp. 168-169.

21) 이석희,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유리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72.

22) 김성민, Richard Rogers+Architects, 「공간도서」, 1989, pp. 106-107.

23) 이은석, "도시속의 명료한 은신처로서의 건축", 「Plus」, 9511, p. 146.

24) 「건축문화 「, 9501, p. 149.

25) Victor Papanec, 한도룡 외 역,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1992, p. 149.

26) 정연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에 관한 연구", 「복식」, 제 30호, 1996, p. 230.

27)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Virago press, 1985, p. 107.

28) Richard Martin & Harrold Koda, Infra Apparel, (NY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p. 10-17.

29)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이화연 외 역, 복식의 시각 디자인, 경춘사, 1990, pp. 320-328.

30) Anne L. Hollander, A Seeing through Clothes, Avon Books, 1975, pp. 85-91.

31) Aileen Ribeiro, Dress and Morality, Holmes & Meier, 1986, p. 17.

32) Arthur Marwick, Beauty in History, Glucestor, U. K. : Thames and Hudson, p. 38, p. 357.